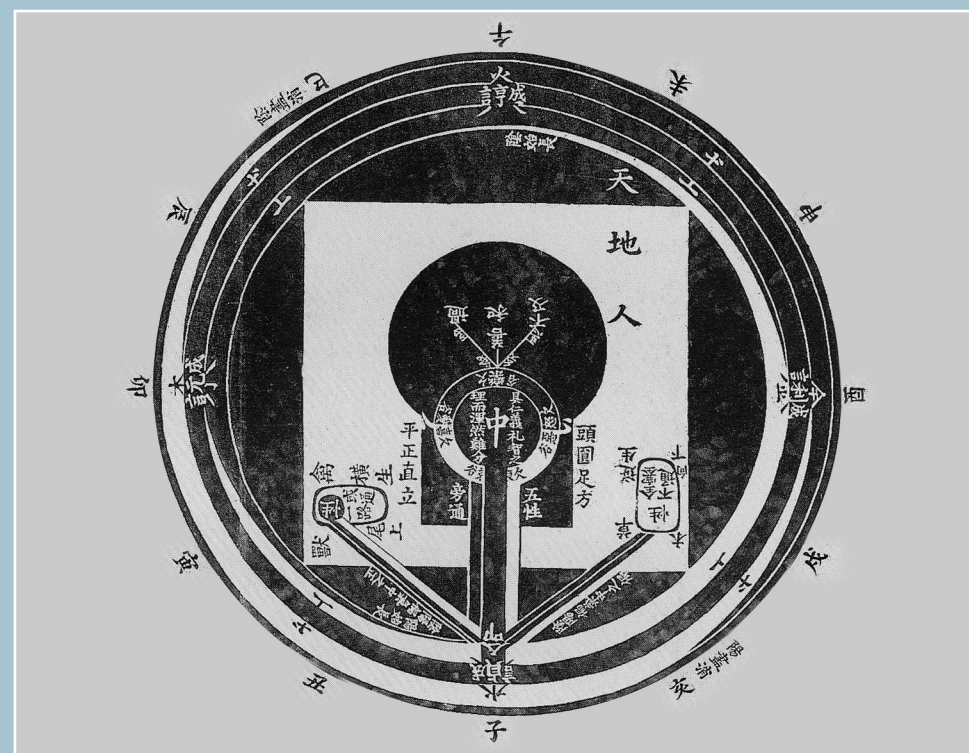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는군요?
가족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기술 속에도
보이지 않지만 삼양이 있습니다



華巖書院 山仰會報

河西先生天命之圖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目次◇

- | | |
|-----------------------------|------------------------|
| 1. ... 山仰會員님들, 儒林다운 儒林이 됩시다 | 8. ... 河西와 交遊했던 人物들 |
| 3. ... 雪景을 읊은河西先生의 詩 | 12. ... 山仰會 消息 |
| 5. ... 文廟配享 疏請에 대한 正祖大王의 批答 | 13. ... 筆巖書院 消息 |
| 6. ... 中庸에서 가려 뽑다 | 16. ... 誠金內譯 및 新入會員 환영 |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岩里 377, 電話: 061-394-0833

發行人: 山仰會長 朴鍾達 編輯主幹: 金梓洙

筆巖書院 山仰會

山仰會員님들, 儒林다운 儒林이 됩시다

山仰會長 朴 鐘 達

이모부댁이 筆岩書院과 바로 이웃하고 있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필암서원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셔진 河西 선생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文廟에 배향된 분이며 退溪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道學者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통적인 儒敎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크고 작은 門中事에 참여하면서 내 先祖이신 訥齋와 六峰과 思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선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나의 발길을 光州 鄉校로 향하게 했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고장의 훌륭한 유림들과 사귀는 것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의 뿌리요 바탕인 유교 문화의 훌륭한 전통을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나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광주 향교에서 여러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청소년을 위한 예절 교육과 한문 교육을 펼치기도 하고 儒道大學을 개설하기도 하여 유교문화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도도히 흘러가는 時代의 흐름을 막을 수 없어서 靑壯年을 유교문화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유교문화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아픈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에 없을 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道學者이자 드높은 선비로 유림들의 尊崇을 받고 있는 河西 선생의 道學과 節義를 계승하고자 새로이 발족한 필암서원 山仰會의 2代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필암서원 산양회는 河西 선생의 道學과 節義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고장의 유교문화를 되살려내고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14차례의 강연회를 열었으며 山仰會報도 다섯 번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을 거두어 朴訥齋, 崔新齋, 奇高峰, 高霽峰, 奇蘆沙 등 우리 고장의 훌륭한 유학자들의 선비정신을 받들어 계승하는 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우리 儒林들이 사회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유림들이 유림답지 못한 데 있었다고 自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무어라고 해도 유교문화는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위대한 뿌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한국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유교문화의 가치관이 굳게 자리잡

고 있습니다. 유교문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전통적 가치요, 우리 민족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지혜의 자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유교문화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儒林이 儒林답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정부나 지방관청의 지원에만 안일하게 의존하는 무기력에 젖어서 사회 변화의 요구에 따라가는 自己革新을 꾀하지 못하고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儒學에 대한 연구와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는 실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교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수천 명 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을 유림운동의 動力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것도 깊이 반성할 일입니다.

다행히 근래에 儒林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어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儒林에 대한 관심은 유림 안에서가 아니라 유림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설가 최인호가 <유림>이라는 연작 소설을 썼습니다. 孔子와 孟子, 정암과 퇴계와 율곡 등 여러 유림들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소설을 재미있게 씀으로써 유교문화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들을 유교문화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의 美德과 智慧가 필요한 시점임을 절감하고 15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유림 소설을 발표하게 되었다는 최인호는 부도덕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정신은 바로 청렴청빈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깨끗한 자존심으로 무장하였던 유교의 선비사상에 있음을 유림들의 삶을 통해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을 유교문화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유림들이 못해냈던 일을 수천 명의 학자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 사람의 소설가가 해내고 있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 유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숲으로 가자. 유림의 숲으로 가자. 孝 忠 禮 敬 가득한 숲으로 가자>라는 랍을 부르면서 유교문화의 가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유림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山仰會員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인 本性인 仁은 인류의 궁극적인 꿈이요 希望이라고 합니다. 孔子의 사상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不正과 不道德이 만연된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유교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山仰會員들이 儒林다운 유림이 되어서 우리 고장의 유교문화를 되살려내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雪景을 읊은 河西先生의 詩

눈 속에서(雪中)

눈 조각 휘날리어 단갈을 뒤덮으니
온몸이 양털 갓옷 입은 것 같군그래
나귀를 타고 잠간 교두로 향해 가니
찬 강에서 낚시한다 사람들은 비겨 보네

雪片紛紛被短褐 滿身渾似白羊裘
騎驢暫向橋頭去 人擬寒江獨釣遊

밤눈(夜雪)

매화가지 엉겨붙어 선 얼굴 드러내니
낮은 기운 갑자기 빗깇을 운내누나
포개진 옥 으시시 기상의 대라며는
조래 솔은 반이나 수염 눈썹 하얘졌네

梅梢點綴開生面 殘氣偏蒙潤色之
疊玉蕭蕭淇上質 徂徠半作皓鬚眉

눈 내린 뒤에 거닐면서(雪後行)

천지간에 불우한 시용이 있어
얼음길을 교만스레 홀로 걷누나
별판은 희고 희어 가이 없으니
만리가 아득아득 은빛 깔렸네

나귀 발굽 옥구슬을 짓밟아가니
맑고 빈 물결이 출렁거리듯
먼지 세상 벗어나라 깨끗한 취미
채찍을 손에 쥐고 유유한 걸음
거센 바람 사방에 몰아쳐와도
찬 기운 스미는 줄 전혀 모르네
흥에 겨워 두어 구 시를 읊으니
세상만사 도무지 구구할 따름

詩翁落魄天地間 偃蹇獨向冰雪途
平原皚皚爲無際 蒼茫萬里如銀鋪
驪蹄踏踏瓊搖地 正似蕩漾清虛無
蕭然高趣出塵間 手揮健鞭行于
凶風頑凜攪宇宙 不覺寒氣來侵膚
乘興閒吟數句詩 世上萬事徒區區

눈(雪)

현명이 순행하니 추위가 으시시
우주가 와들와들 모진 바람 휩쓰누나
청산은 정적하여 죽은 개와 빛인데
초목은 바싹 말라 윤기가 전혀 없네
하늘이 이를 위해 거센 바람 보내주어
옥가루 휘날려라 허공에서 떨어지네
처음에는 흰 나비 화원에 날아들듯
오락가락 꽃잎을 한없이 희롱하네
얼크러져 휘날려 눈도 미처 설새없이

가로세로 마구 치니 동서쪽이 희미하이
 한가로운 자태가 광호와 맞다투어
 몰아오고 떨어지고 저절로 아득아득
 난새 날고 봉 춤추듯 일정한 곳이 없이
 갖은 아양 다 부리며 앞마루에 살포트 지네
 우뚝한 산봉우리 아로새김 하 좋은데
 길고 짧은 옥 병풍은 서로서로 몇 겹인지
 숲 속의 모든 나무 하루가 다 못 가서
 구슬 꽃 옥가지 이리저리 어울렸네
 사나운 깊은 겨울은 누리 암담터니
 이 성 저 성 갑자기 봄 기운이 노글노글
 물에 따라 형을 준 것 한 종류만 아닐진대
 하루내 보고 나니 마음이 멍해지네
 내리보고 쳐다보니 천지가 빛나빛나
 알겠노라 조화가 응한 힘을 자랑한 것
 나도 역시 청한한 한 사람 유자라서
 시를 지어 애오라지 천공을 찬하노라

玄冥按節寒凜凜 宇宙烈烈吹頑風
 青山寥落死瓦色 草木枯槁無華容
 天公爲此遣狂飈 亂吹玉屑落虛空
 初疑 蝶飛花園 弄花紛紛亂無窮
 飄飄散漫來不息 縱橫亂泊迷西東
 閒閒恣意競狂豪 隨落隨來自濛濛
 鸞翔鳳翥靡所定 盡態窮妍落前
 峯 巖巒工琢鏤 玉屏參差自相重
 林中群樹未一日 瓊花玉柯交橫縱
 坐令頑冬幽墨日 千城萬郭春融融
 因物賦形非一類 坐看盡日心如朦
 俯仰乾坤光照曜 乃知造化專其雄
 吾亦清閒一遊子 裁詩聊且贊天功

하서 선생이 싹틔운 호남 정신

김 병 효
산양회원

영남에 퇴계(退溪) 선생 큰 강이시니
 호남에 하서(河西) 선생 큰 산이시다

안동에 도산(陶山)서원 골짜기 올라 드높으니
 장성에 필암(筆岩)서원 들가에 드넓어라

퇴계 이황(李滉) 선생은 도학 문장 교육 깊으시고
 하서 김인후(金麟厚) 선생은 도학 문장 절의
 높으시다

도산서원이 영남 선비의 텃밭이거니
 필암서원은 호남 선비의 텃밭이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난중기에 이르되
 「약무 호남 시무 국가」(若無 湖南 是無 國家)라
 했으니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있었겠느냐」
 이 명언이야 호남 선비의 애국혼을 말함이니
 나라 위태로울 때 붓 던지고칼 휘두른 그 선비가
 하서 선생이 싹틔운 거경궁리(居敬窮理) 호남
 선비정신이 아니던가

조선조 큰 선비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하늘 도와 하서 선생 낳으셨다비문 새겨
 사당과 그 이름 우동사(祐東祠) 호남에 자랑 이어

〈전남문학〉 2005 여름호 (통권53호) 기고시

文廟 配享 疏請에 대한 正祖大王的 批答

선정 文靖은 곧 우리 동방의 周子이다. 양정 張朱는 먼저 聖廟에 配享되고 周子만 호올로 중사의 열에 빠진다면 兩程 張朱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편안치 않겠는가?

오늘날 너희들의 청은 바로 趙文正 李文純 李文成 宋文正의 마음인 것이다. 윤희를 일부러 늦추어 이제까지 온 것은 본의가 그 예를 중히 여기고 그 일을 삼가서 하자는 데 있을 따름이었다. 소가 이미 세 번이나 올라왔는데 다시 무엇을 어렵게 여기겠는가.

너희들의 소청대로 선정 문정공 金 麟厚를 文宣王의 廟庭에 配食토록 하고 예관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날을 가려 거행토록 하라.

명하여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を 加贈하고 또 不祧를 명하다.

겨울 시월 시호를 文正으로 내리다.

도덕이 넓게 들린 것을 文이라 이르고 正으로 써 사람을 服한 것을 正이라 이름

십일월 임금이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내리다.

이 달 기유일 문묘에 陞配하다.

批曰先正文靖卽我東之周子也
兩程張朱侑聖廟而使周子獨漏
於從祀之列在兩程張朱之心安
乎否乎爾等今日之請卽趙文正
李文純李文成宋文正之心也允
諾之姑徐至今意在重其禮愼其
事而已疏既三上更何持難爾等
所請先正文靖公 金 麟厚配食
文宣王廟庭許施領禮官取考典
禮卜日舉行

命加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
政府領議政 兼 領經筵弘文館
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又 命不祧

冬十月改 賜諡文正

道德博聞曰文以正服人曰正

十一月 上遣官賜 祭

是月己酉陞配文廟

道와 中和

하늘이 命한 것을 性이라 하고, 성에 따름을 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 道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니 떠날 수가 있다면 道가 아닌 것이다.

이러므로 군자는 도가 보여지지 않는 바를 삼가며, 도가 들려지지 않는 바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숨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남이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가 홀로 있음을 삼가는 것이다.

희로애락이 나타나지 않는 것(未發)을 中이라 하고, 나타나 節에 맞는 것을 和라고 한다. 中이라는 것은 天下의 大本이고, 和라는 것은 天下의 達道인 것이다. 中과 和에 이르게 하면 천지가 자리잡히며 만물이 化育되는 것이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 君子戒慎乎 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爲焉 萬物育焉

中庸의 實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道가 행하여지지 않음을 내가 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道가 밝혀지지 않음을 내가 안다. 현명한 자는 지나치고 못난 자는 미치지 못한다. 사람이 먹지 않은이가 없으나 맛을 알 수 있는 이는 드물다.

子曰 “道之不行也 我知之矣 知者過之 愚者不及也 道之不明也 我知之矣 賢者過之 不肖者不及也 人莫不飲食也 鮮能知味也

誠과 道

誠은 하늘의 道요 誠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의 道이다. 정성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알맞게 되며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어 종용히 도에 알맞게는 것이니 성인이다. 정성되게 하는 것은 善을 가리어 굳게 잡는 것이다.

널리 그것을 배우며 자세히 그것을 물으며 신중히 그것을 생각하며 밝게 그것을 분별하며 두터이 그것을 행해야 한다.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至誠과 天道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됨이라야 그 性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성을 다할 수 있으면 곧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고, 사람의 性을 다할 수 있으면 곧 만물의 性을 다할 수 있고, 만물의 性을 다할 수 있으면 곧 하늘과 땅의 化育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의 化育을 도울 수 있게 되면 곧 하늘과 땅과 더불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聖人의 道

그러므로 군자는 德性을 높이고 묻고 배우는 길을 가는 것이니, 넓고 큼에 이르되 정미함도 다하며, 높고 밝음을 極하되 중용의 길을 가며, 옛것을 익히어 새것을 알며, 敦厚함으로써 예를 높이는 것이다.

故 君子尊德性而道問學 致廣大而
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溫故而知新
敦厚以崇禮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①

칙센트 미하이

어느 집단에서든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음식, 따뜻함, 신체적 보살핌, 돈이 제공하는 물질적 에너지며,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목표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정신적 에너지다. 부모와 자식이 사고 방식·정서·활동·기억·꿈을 공유하지 못하면 그들의 관계는 물질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신히 유지된다. 그 경우 정신적 공감대는 원시적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점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질적 욕구만 충족시키면 가정은 저절로 굴러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듯하다. 비정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따사롭고 포근한 영원의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 생활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40대 후반에서 50대의 남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자녀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당황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나처럼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던가 하며 그들은 억울해한다. 물론 하루에 몇 분 이상 대화를 나눈 적이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일로 허덕거리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가정을 알뜰살뜰 보살핀단 말인가….

흔히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엄청난 정력을 지속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고

p. 11 이어짐 ▶▶▶

河西와 交遊했던 人物들 ①

金 梓洙
광주대 교수

河西와 海南 尹氏 四兄弟

河西集에 〈借金鰲新話於尹禮元〉이라는 詩 한 편이 실려 있다. 河西가 尹禮元에게서 金鰲新화를 빌려 읽은 것을 읊은 詩이다. ‘병든 눈을 닦고 나니 두풍이 거뜰히 나았다오(暫借河西揩病目 頭風從此快痊之)’라는 詩句로 보아 河西는 병이 든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나는 이 시를 읽고 놀라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金時習의 金鰲新화를 읽은 기록을 남긴 사람은 10명도 안 되고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2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李紆, 朴祥, 李滉, 尹春年 등이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宣祖의 命으로 金時習傳을 썼던 栗谷도 이 책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니, 임진왜란 이전에도 金鰲新화는 구하기가 극히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런 金鰲新화를 河西가 읽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시습이 쓴 金鰲新화는 우리 소설사를 빛낸 걸작 중의 걸작이다. 수천 편의 詩보다도 金鰲新화 때문에 유명한 문학가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日本의 소설문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널리 애독되었던 金鰲新화가 정작 국내에서는 단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고, 일본에서 간행된 것을 최남선이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처음

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金鰲新화의 독자층 형성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는 河西에게 이 책을 빌려준 尹禮元이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추적하였다. 오래도록 온갖 문헌을 뒤져도 나오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尹氏 족보를 열람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포기하였다. 10여 년이 지난 3년 전에 우연히 全南 圈文集解題(全南대 인문과학연구소 간행)을 뒤지다가 尹復의 文集인 杏堂遺稿 속에 〈借金鰲新話於尹元禮〉라는 詩가 들어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尹禮元이 바로 尹元禮였던 것이다. 禮元과 元禮는 곧 尹復의 字였다.

그렇다면 尹復은 河西에게 빌려준 金鰲新화를 누구에게서 구하였을까? 그리고 그 책은 필사본일까, 목판본일까. 만약 필사본이라면 놀재 朴祥에게서 그의兄 謁正 尹衢에게도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에 高麗大 최용철 교수가 中國 大連 도서관에서 金鰲新화 木版本을 발견했는데, 이 책은 1551년에 尹春年이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목판본임이 판명되었다. 日本人이 소장하였다가 大連 도서관에 수장되었음이 판명되었다. 김시습을 孔子와 같은 聖人으로 추앙하고 梅月堂集을 간행했던 尹春年(1514~1567)과 尹

復(1512~1577)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했더니, 두 사람은 1534년 生員試에 함께 합격한 동방이 아닌가! 尹春年은 과거에 함께 합격한 尹復에게 1551년에 간행한 목판본 금오신화를 주었음이 틀림없다. 이로써 尹復의 4兄弟들과 그의 친한 벗들이 금오신화를 읽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河西와 尹復은 어떤 관계였을까? 김인후, 유희춘, 尹士栗, 윤복은 모두 崔山斗의 제자들이다. 崔山斗는 학덕이 높아 호남의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河西는 尹氏 형제들 가운데 尹行(字大用)을 제일 먼저 만났고 그의 仲兄 과 동생 復을 뒤에 만났다고 詩에 쓰고 있다. 尹行은 河西보다 두 살 위인 1508年生이요 尹復은 두 살 아래인 1512年生으로 성균관에서 같이 공부했다.

河西集에는 尹大用 行에게 준 詩 두 편이 전한다.

中宮殿春帖—尹大用代作(河西集 국역본 中 496쪽)
尹大用行爲人求挽 (국역본 662쪽)

河西集에는 杏堂 尹復에게 준 4편의 詩가 전한다.

送尹元禮復榮還南鄉(국역본 上 220쪽)
尹禮元赴京 (국역본 上 698쪽)
贈元禮 (국역본 中 440쪽)
借金鰲尾話於尹禮元(국역본 中 125쪽)

이 4편 가운데 河西와 尹氏 兄弟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詩로 <送尹元禮榮還南鄉>이

라는 詩가 있다.

내 처음 大用을 알았었는데
그 사람이 글세고 또 후했거든
뒤이어 仲氏 季氏 다 만나보니
제 각각 지키는 게 있더군 그래
삼사년을 두고 늘 추종했으니
세월 또한 오래라 할만도 하지
肝膽이 서로 환히 비추어 주니
분명히 창유(窓牖)가 보였더라오
금년 가을 그 좋은 과거 땀지만
그대에게 대단한 게 아니고 말고
나 같은 자는 너무게을러 빠져
부모님을 위로할 길이 없구려
차운 방에 홀로 앉아 머리 굽으며
흰 구름에 속절없이 고개 돌리네

이 詩는 尹復이 1538年(中宗 33年)에 別試文科에 합격하고 귀향할 때에 축하한 시다. 맨 처음 尹行을 만난 다음부터 尹氏 형제들과 수년마다 늘 만났다고 쓰고 있다. 또 尹元禮에게 준 詩를 들어 본다.

贈元禮

옛날엔 그대 함께 즐겼었는데
지금 나는 외톨로 떨어져 있네
아득아득 泮宮의 얼굴이 라면
문득문득 스쳐가는 낙양성 일레
바다 달은 맑은 담화 허용하잖고
산 구름은 저문 시름 보내주누나
속절없이 龍門을 바라만 보니
어느 날에 신선 배 띄워 불러나

昔尹共遊樂 今我獨離憂
依依泮水面 忽忽洛城頭
海月阻清話 山雲送晚愁
龍門空悵望 何日泛仙舟

이처럼 河西와 가깝게 지냈던 尹復이 1552년에 樂安 군수로 내려왔으니, 아마 이 무렵에 그 귀중한 금오신화를 빌려주었을 것이다.

尹行의 仲兄 尹 에게 河西가 준 세 편의 시가 있다.

贈尹坦之衡 (국역본 上 381쪽)
寄題尹坦之海亭 (국역본 中 271쪽)
淸遠樓作(坦之舅家) (국역본 中 491쪽)

盧守愼이 말하기를 이 詩는 충담하고 함축성이 있어 요즘 사람으로는 만에 하나도 미처갈 수 없다는 詩評이 붙어있는 시를 들어본다.

寄題尹坦之海亭

십 년을 숲에 누운 병든 몸이라
멀리 떨어진 벗이 그림자 그려
바다를 놀러 정자를 일으켰다니
때때 타고 나루를 물어보고파
창파는 아득아득 다함 없는데
백발은 왜 이디지 새로운건가
누워서 고래 봉새 상상해 보니
溪山도 사람에게 그럴듯한걸

林間十載病 奈此遠朋親
壓海聞開檻 乘桴欲問津
滄波杳難極 白髮一何新
臥想鯨鵬戲 溪山亦可人

尹氏 四兄弟의 長兄 橋亭 尹衢는 河西의 스승 崔山斗와 절친한 사이이다. 崔山斗의 제자로 河西와 가장 친했던 尹士栗이 굴정에게 배우기 위해 해남으로 찾아가 그곳에 머물렀으니 굴정과 하서는 자주 교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贈尹坦之 이라는 詩에서 “옛그제 員外郎(굴정을 말함)에게 인사를 하고 두 새벽을 간곡히 얘기 들었네”라는 시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하서는 이틀이나 새벽녘까지 굴정에게 가르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굴정 윤구와 靈川 申潛과 함께 河西는 영암 월출산과 강진 병영을 여행하면서 해남 연동을 몇 번 방문했던 기록이 있다. 이 때에 尹氏 형제 및 다른 벗과 선배도 동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에 윤굴정에게 드린 詩 5편이 전한다.

見月出山 (국역본 中 488쪽)
兵營作 (국역본 中 489쪽)
上尹員外衢橋亭 (국역본 上 774쪽)
用佔畢壁上韻呈兩先生 (국역본 中 490쪽)
員外不和更呈乞和 (국역본 中 611쪽)

이 외에도 몇 편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와 강진에서 굴정을 만났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윤원외 구 굴정에게 올린 시>는 다음과 같다.

錦岳이라 십 년의 여름이라면
金陵이라 칠 월의 가을이었소
은근히 만나뵈어 기뻐었는데
길이 워낙 머니 이를 어찌하리까

錦岳十年夏 金陵七月秋

殷勤欣奉袂 其奈路悠悠

崔山斗, 柳成春과 함께 湖南 三節로 명성이 높았던 윤곡정과 만남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했던 河西의 마음이 이 詩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河西는 尹곡정에게 5편, 尹 에게 3편, 尹行에게 2편, 尹復에게 4편의 詩를 남기고 있으니, 우의에 넘치는 돈독한 교유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아직 四色 당파가 갈라져 있지 않아 당파를 초월하여 교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한 권도 전하지 않은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杏堂 尹復이 河西에게 빌려주어 읽게 하였고, 尹氏 兄弟들과 그 친한 벗들이 희귀한 금오신화를 읽었음이 확인된 것은 우리 문학사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편의상 존칭은 생략하였음)

알림

河西는 400여 人物들과 詩를 주고 받으며 교유했습니다. 山仰會報 6집부터 河西와 교유했던 人物들을 연재하려 합니다. 河西와 교유했던 人物들의 후손께서는 200字 원고지 28매 내외로 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河西集에 없는 자료도 소개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 ②

생각한다. 반면에 가족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 이어서 정신적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배우자가 계속 뒷바라지해 줄 것이고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애정도 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주 잘 돌아가는 기업도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업가는 없다. 그렇지만 가정은 다르다고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 가정은 무질서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이어서 세태가 아무리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통제라고 하는 외부의 끈과 종교적·윤리적 일체감이라고 하는 내부의 뜻이 살아 움직여 가정을 묶어주었던 시절에는 그런 믿음을 가질 만도 했다. 이처럼 의무 관념으로 강하게 결속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끊임없이 절충과 타협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백 년해로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나깨나 노력한다는 건 웃기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갈 의무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에누리 없이 요구되는 요즘 사회에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틀을 유지하기 어렵다.

새로운 형태의 가정은 구성원에게 본질적 보상을 안겨주지 못할 경우 급격히 허물어진다. 가정에서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몰입의 즐거움」에서

▶ 연세대 송준호 교수 하계 학술 강연

2005년 6월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송준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局面〉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200여 산양회원이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 본회 연구분과 위원 회의

2005년 8월 25일 11시에 미가회관에서 본회 연구 분과 위원회의가 열렸다. 박종달 회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하여 산양회 분과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전주대 오종일 교수는 필암서원에서 유교경전 암송 경시대회를 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山仰會 活動事項

○ 임원회의

- 일시 : 2005년 10월 21일 11시 30분
- 장소 : 광주시 남구 예원회관
- 참석자 : 회장 박종달 외 9명
- 안건 : ① 2005년 정기 총회 일정
② 학술 발표자 선정
③ 회보 발간
- 회의결과 : 2005년 정기총회는 12월 8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열며, 학술 발표 주제를 '河西先生의 中和思想'으로 정하고 오종일, 고영진 두 교수에게 청탁하기로 함

○ 편집회의

- 일시 : 2005년 11월 21일 11시
- 장소 : 광주시 대동문화사
- 참석자 : 부회장 김용숙 회 9명
- 안건 : ① 회보발간 원고수합

○ 임원회의

- 일시 : 2005년 11월 21일 16시
- 장소 : 광주시 남구 예원회관
- 참석자 : 회장 박종달 외 9명
- 안건 : ① 정기총회 결산준비

○ 새 組織幹事에 李忠源 氏 선임

李沂錫 조직간사가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李忠源 氏가 선임되었다.

▶ 본회 閔祐植 고문 「韓國詩」에 詩 당선

본회 민우식 고문이 지난 5월 추천 시인이 되었는데 韓國詩社에서 발행하는 월간 「韓國詩」 7월호에 〈간절한 4월〉, 〈裸木이 되어〉, 〈산나리〉 3편이 당선되어 실렸다.

多福하신 閔고문이 시짓기에 몰두하면서 老年을 아름답게 보내고 있어 자랑스럽다.



▶ 河西 김인후선생 추모 秋享祭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 1510~1560) 선생을 기리는 추향제가 9월 20일 오전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추향제에는 유한상(柳漢相) 성균관 고문, 이준범(李準範) 전 고려대 총장, 박종달(朴鍾達) 광주향교 재단이사장, 김달수(金達洙) 울산 김씨 대종회장, 이원장(李源長) 국제퇴계학회이사장, 이곤환(李昆煥) 대구향교 유도회장, 박종주(朴淙柱) 성균관 전의 등 유림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추향제는 제관이 제물을 바치는 봉진례(奉進禮), 비단을 바치는 전폐례(奠幣禮), 술잔을 바치는 초헌례(初獻禮)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준범 전 총장이 초헌관을 퇴계학회 이원장이사장이 아헌관을 高永莢 氏가 중헌관을 맡았다. 陳設은 보성유림 任亨模, 집례는 순천유림 朴淙柱, 大祝은 유도회 장성지회장 李相鏞이 수고했으며, 선비학당 유생들이 집사를 맡았다.

초헌관을 맡은 이준범 전 총장은 제를 마친 뒤 서원 내 청절당(淸節堂)에서 ‘하서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강론했다.

이 전 총장은 “하서 선생은 도학(道學)과 절의(節義), 문장(文章)을 겸비한 호남의 대현(大賢)”이라며 “선생의 서거 후 유림 문인의 노력과 왕의 특명으로 선생을 추모하는 문집이 여러차례 간행될 정도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났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 선비학당, 초·중학생에게 예절 선비 교육 실시

필암서원 선비학당에서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위의 도움을 받아 장성군 내 초등·중등학생들에게 예절과 선비 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교육에는 장성군 내 초등학교 6학년 490명(9회), 중학교 2학년 376명(7회)이 참여하였다.

서원을 안내 및 설명하고 우동사를 봉심한 후 예절교육, 하서 선생의 생애, 선비고을 장성의 훌륭한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강사진은 필암서원 집강 李炳玆, 朴來鎬 씨와 전남도 문화재 해설사 고연주, 김채림, 정수정 씨가 수고했으며 산악회 총무간사 金相元 씨가 교무를 맡았다.

또한 매주 월·화·수·목 4일간 장성군 내 儒生들에게 四字小學, 明心寶鑑, 中庸을 읽고 붓글씨를 쓰는 교육도 계속 하고 있다.

♣ 주말 체험학습

본 선비학당 교육이 2005년도 전남도 집중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일 양일간 유교 고전 읽기, 서예 배우기, 전통제례 배우기를 하고 있으며 서원의 현판을 탁본하는 교육도 하고 있다.

▶ 장성군 전입교사 87명 필암서원 유적 탐방

장성군은 지난 9월 16일 올해 군내 학교에 전입한 교원 87명을 초청, 군내 문화유적 탐방을

통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전입한 교원 87명 중 1차로 지난 9일 45명과 2차로 16일 42명을 대상으로 필암서원, 백양사, 홍길동 생가 등 장성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문화유적 탐바행사를 가졌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장성의 문화, 역사 유래를 먼저 체험,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장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해마다 이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筆巖書院 정비사업 추진 현황

- 국가사적 242호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 규모: 부지 48,639m²
 - 사업비: 177억원
 - 사업기간: 2000~2006년
 - 사업내용: 부지매입, 건물 17동 보수, 전통조경, 오수차집관로 설치, 진덕원·송의관 건립, 부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 앞으로 추진 계획
 - 2005년 전통조경, 연지, 정자 건립 등
 - 2005년~2006년 진덕원, 송의관 건립, 유물전시관 증축
 - 2006년 이후 기타 기반시설 설치 사업

▶ 河西先生 神道碑閣 건립

전라남도 문화재과에서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신도비를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들여 황효면 원당산 하서선생 묘소아래에 신도비 비각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河西先生 神道碑閣

▶ 河西先生の 卵山碑閣 건립

하서 선생의 난산비를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들여 황룡면 백동부락 건너편 난산에 비각을 건립하고 2005년 10월에 준공식을 가졌다. 2004년에 통곡대와 난산비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하였고, 2005년에 비각을 건립함으로써 하서 선생이 仁宗의 승하를 통곡한 유적이 모두 정비되었다.

▶ 필암서원 집강 이취임

碧松 李相鏞 氏 본군 儒道會長을 맡은 관계로 이임하고, 雲沙 奉相九 氏와 栢陽 李忠源 氏가 취임하였다.

논어의 철학적 재구성 논리

문학과 지성

朴 異 汶

家族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네 가지 오해

양 창 순 박사

가족관계는 인간 심리의 전시장이자 전쟁터라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가 사실은 가족관계다. 그런데도 우린 가족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오해는 가족관계를 단순하고 평면적이라고 여기는 점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입체적이다. 사실 가족만큼 성별, 나이, 살아온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관계도 드물다. 그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공간 내에서 가장 많은 요구를 하고 또 그 요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기를 바라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들 중에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결코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가장 급격하게 나르시시즘에 상처를 입는 것도 가족관계다. 가족만이라도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픔이 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오해는 가족관계는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도 없다. 물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부부들은 모두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노력은 대개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도록 개조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흔히 결혼을 ‘연애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나르시시즘을 충족해 주기 위해 고민하는데 결혼하면 내 나르시시즘을 더 중요시한다. 여기서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이 생겨난다.

세 번째 오해는 가족은 서로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고 여기는 점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도 감정의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편안하게 쉬고 싶어진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비난이나 공격의 화살을 던져보라. 긴장을 풀고 있는 만큼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 그건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마찬가지다. 내 가족이니까 내가 대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많이 지켜봐주는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줄 때 나의 나르시시즘은 100퍼센트 충족되게 마련이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나의 나르시시즘은 바닥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오해는 가족에겐 지나친 기대를 걸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점이다. 그러나 가족끼리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진실이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기를 바란다. 때론 실현 불가능한 기대를 가족에게 걸곤 한다. 가족 사이에 원망과 적개심이 쌓이는 것도 높은 기대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정신상담을 통해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나서 가족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 新東亞 2005년 9월호 「마음의 경영」 강의에서 -

入會를 환영합니다

〈姓名, 本貫, 雅號〉

金相垠 蔚山 靑菴	광산, 운남	高永莢 長興 后石	부안, 주산
孫寧達 廣州	경주, 황남	任亭模 長興	보성, 겸백
金老洙 蔚山 慕巖	용산, 청파	曹仁鎭 昌寧 蘇澤	담양, 고서
朴淙柱 珍原 晩堂	순천, 장천	奉祥九 河陰 雲史	장성, 삼월
高祐錫 長興 松原	담양, 창평	朴泰銳 珍原	장성, 진원
金在植 光山 錦齋	광주, 북구	朴英洙 寧陽	장성, 황룡
金正國 廣州 白啞	경주, 황남	金滿奎 蔚山 滿齊	광주, 북구
崔炳植 隋城 興山	광주, 북구	金相元 蔚山	성남, 분당

이상 2005. 10. 30 까지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金老洙	壹百萬원
장성군	진원면	학전리	金相杓	貳拾萬원
전 북	부안군	주산면	高永莢	壹拾萬원
경 기	성남시	분당구	金相元	壹拾萬원

알림

1. 본회 제17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요일) 10 : 00
- 장 소 : 광주향교 유림회관(광주시 남구 구동 22-3)
- 주 제 : 河西 先生의 中和 思想
- 발 표 자 : 오종일(전주대학교 교수)

2. 원고 모집안내

- ① 河西 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 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축산농협 175809-52-099266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용숙)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축협 175809-52-099266)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 하시고 전화(019-618-2084 김상원)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근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켜 선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산양계 재발기 준비위원회(위원장 安晉吾)를 구성하여 高亨坤 필암서원원장을 비롯한 서원집강, 崔昌圭 당시 성균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 230여명이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山仰會로 개칭하여 재발기 하였던 바 그후 활동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晉吾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鍾雋씨(서울대 공대졸, 부산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 의 주제 아래 尹絲享 고려대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 1호)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龜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吾 산양회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2호)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강회를 여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晉吾 회장과 金長朱 총무가 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奎, 새총무에 孔鉉維 선임 “河西 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 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를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1500부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함.